

내러티브 저널

성결대학교 교육대학원
연극영화교육전공 20243078 윤정희



성 결 대 학 교 교 육 대 학 원

2026. 4. 30. (목)

첫 출근, 교생 첫날

드디어 오늘 첫 교생실습 날이다. 타학교 교생 선생님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오늘은 중간고사 시험 마지막 날이라서 개인업무 하면서 선생님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그래서 아직 지도교사와 학급담당 선생님을 뵙지 못하였다. 짧았지만, 선생님들과 대화도 하고 적응하는 날이라고 생각하였다. 오늘은 특별하게 한 것이 없어서 큰 무리없이 지나갔다.

2026. 5. 6. (수)

아이들과의 대면이 처음이라 긴장되고 걱정되는 마음이 있었다. 그런데 걱정과 달리 나를 너무 환영해주어서 고마웠다. 본격 실습 첫 날이라 그런지 연수와 안내, 수업 참관 등 하루가 바빴다. 수업 참관하면서 선생님의 지도법을 통해 나도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5월에는 학교 행사가 많아서 수업 참관 횟수도 적어서 최대한 많은 수업을 참관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수업 시연 날짜도 정해졌다. 3시간씩 수업을 총 2번 해야한다. 3시간 수업 계획이라는 말에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 순간 막막함과 어떤 수업을 해야 아이들이 즐거워할 수 있을까, 아이들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는 수업이 무엇이 있을까, 나의 수업 만큼은 아이들이 간혀 있는게 아닌 자유롭게 활동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더 고민이 된다. 일단 주제는 정했으니 빠른 시일 내에 지도안을 만들어서 담당 선생님께 컨펌과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채울 수 있을지 도움을 요청해야겠다.

2026. 5. 7. (목)

오늘은 어제 미리 수업참관 희망 신청을 하지 않아 교감 선생님 연수와 자유타 시간을 가졌다. 다같이 일지작성과 수업 지도안 구상을 하였다.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리며 지도안을 완성했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 어떻게 보완하고 바꾸면 좋을지 고민이다. 다른 선생님께도 보여드리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먼저 확인 후 참고해서 보완 후 교과 선생님께 1차 컨펌을 받아야겠다. 그 후 어려운 점은 선생님께도 도움을 요청드려서 한번 받아봐야겠다. 그리고 아이들과 친밀감 형성을 빨리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까지 해야할 일이 바빠 아이들과의 시간이 없어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과 친해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아이들과 친해질 수 있는 <미션 도장판>을 제작하여 아이들과 조금이나마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중간중간 반에 많이 들려서 아이들과 얼굴 한번이라도 더 봐야겠다.

2026. 5. 8. (금)

벌써 한 주가 끝났다.

지난 한 주는 적응과 아이들과의 친밀감을 쌓는 시간이라면 다음주는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준비하고 상담을 하며 예비교사로서의 자세를 길러야겠다. 아트홀 청소 때 아이들을 지도하며 얼굴 한번 더 익히려고 하였고, 점심시간에는 반에 올라가서 아이들에게 말도 걸고 가까워지려고 하였다. 종례 시간에는 성적표 배부를 하며 아이들의 이름 한번 불러보고, 눈도 마주치며 기억하려고 하셨다. 벌써 한 주가 끝나며 다음주에는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교사로서의 자질이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다.

2026. 5. 11. (월)

오늘 1학년은 4교시 이후 외부 체험학습 활동이 있어서 종례가 없다. 오늘부터 아이들과 <미션 빙고판>, <마니또>, <상담>을 시작하였다. 아이들이 과연 참여해줄지 떨리지만, 아이들에게 약간의 기대를 해보고 싶다. 이제야 아이들과 친해지려고 하니 지난 일들이 조금 아까웠다. 더 빠르게 준비해서 아이들과 친해지려고 할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 연수를 들으면서 학교에서는 항상 학생들의 안전이 우선 시 되어야 하며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것을 느꼈다. 한 달 동안 내가 아이들과 많은 추억을 보내고, 아이들에게 좋은 에너지와 원동력을 불어 넣어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2026. 5. 12. (화)

교과 선생님께 최종 지도안 컨펌을 받았다. 떨리고 불인하지만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먹자'라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변수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생각도 하고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날이었다. 오늘 기억에 제일 남았던 하루 일과는 아무래도 예술교육부장 선생님의 공연예술교육부 업무 연수였다. 예술분야 업무라서 더 관심이 갔던 연수였던 것 같다. 선생님의 많은 이야기가 나에게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하까? 하면서 상상하게 만들어줬던 연수였다. 그래서 더 기억에 남는 연수였고, 일과였다. 이 외에도 계속 지도안 수정과 수업 활동지 제작을 할 때도 너무 아이들에게 부담을 주거나 조건을 줌으로써 가뭇두는 것이 아닌 최대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열어주자라는 생각과 이 활동이 아이들에게 적절할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다. 결국 실제로 해보기 전까지는 믿어볼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2026. 5. 13. (수)

첫 수업 시연을 하였다. 수업 시연을 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다. 총 3시간 (3차시) 동안 진행되는 3차시 수업은 처음 지도해봐서 어떤 변수가 있을지 예측이 조금 어려웠다. 특히 시간 분배에 있어서 더욱 그랬던 것 같다. 1~2차시에는 3분 정도의 시간이 남아서 진땀이 났다면 마지막 3차시에는 오히려 시간이 부족해서 진땀이 났었다. 그래서 더욱더 시간 분배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선생님의 피드백을 받으면서 더 많은 아이디어를 얻게 되었다. 그래서 지도안을 조금 더 보완하고 수정해서 다음 수업 때는 변화된 지도안을 가지고 수업에 가져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너무 떨렸던 첫 수업 시연이었지만, 많은 것을 느꼈고, 후회도 되었고 성찰 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뿐만아니라 교사는 만능꾼이라고 더 느꼈다. 발표하는 팀이 있을 때 관찰하고 보고 있는 친구들까지 살피면서 다른 개인행동은 하고 있는게 아닌지까지 체크해야 한다는 게 정말 만능꾼이라고 느꼈다.

2026. 5. 14. (목)

벌써 어느덧 교생활동을 한지 2주가 되어간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동료 교생 선생님의 수업 참관이다. 정말 너무 기억에 남았던 것이 선생님의 카리스마가 담겨 있고 또 중요한 수업에 대한 전문성과 지식이 잘 드러나 있어서 연출 전공이나 영화전공 친구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 수업이었다. 그래서 참관하는 나에게도 도움이 되는 수업이었다. 그래서 나에게 남은 수업 시연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나에게도 필요한 부분들을 많이 볼 수 있었던 수업 참관이였다. 반 아이들이 나에게 점점 대화도 많이 걸어주어서 기분이 정말 좋았다. 그만큼 나도 아이들에서 기억에 남을 교생 선생님이 되어 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2026. 5. 15. (금)

아침 조례 시간에 아이들에게 너무 큰 감동을 받았다. 아이들이 담임선생님께 ‘스승의 날’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도와달라고 해서 그렇게 인지는 하고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쓰는 롤링페이퍼 편지를 내 것까지 준비를 해주었다. 이 부분은 생각지도 못했어서 더 감동이였다. 그리고 체육대회 날 이라서 담당 선생님과 후문 입장 지도를 같이 하였고 경기에서 학생들 질서 지도도 하였다. 아이들이 체육대회라서 그런지 경기에 대해서 엄청 열심히 하였고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귀엽고 기특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매사 열심히 하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앞으로도 잘 되기를 응원하게 된다. 예고에서 진행되는 체육대회는 나에게 좋은 추억과 기억을 안겨 주었고. 잠깐이었지만 담임선생님께서 학교에서 사용하는 메신저나 프로그램에 대해 짧지만 설명해주셨다.

2026. 5. 18. (월)

오늘부터 조, 종례를 들어갔다. 안내사항과 수업참여 독려, 주변 쓰레기 정리 등을 지도 하였다. 나의 말을 잘 경청하고 들어주는 아이들을 보여 흐뭇했다. 1학년 수업 참관은 처음이라서 꼭 들어보고 싶었는데 열심히 하는 아이들을 보여 귀엽고, 흐뭇했다. 나에게 계속 말을 건네고, 무언가를 하는 또는 하려는 아이들이 너무 고맙고 기특했다. 잠깐 있다가 가는 선생님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아해줘서 고마웠던 것 같다. 2명의 동료 교생 선생님 수급 참관을 했는데 한 분은 이론에 강하신 분이고, 한 분은 몸으로 하는 활동에 강한 분이신 것 같았다. 각각의 수업에서 얻고, 배운 것도 있었고, 대상에 맞는 수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양한 아이디어와 소스들이 이번에 많은 도움이 된 것 같다.

2026. 5. 19. (화)

오늘 창체 시간 7교시에 들어가서 아이들 관리와 상담, 미션 방고판 등을 진행하였다. 그 후 종례 지도 때 공지사항 안내와 청소를 시키면서 학급 청결을 위한 활동을 하였다. 일과 전반적으로 내일 있을 마지막 수업 시연에 관해서 지도인 수정과 자료를 준비했다. 이미 시연을 한번 했었어서 그런지 떨림은 처음보다 덜 했다. 오히려 주제와 내용은 같지만 약간의 활동이 수정되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함이 더 컸다. 그리고 내일은 중식지도도 처음으로 하게 되는데 전체 아이들을 만난다고 하니 기대되고 설레는 마음도 있다. 이제는 나에게 70% 정도 마음을 열어준 아이들이 있어 고맙기도 하고 나도 그만큼 더 좋은 교생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커지고 있는 것 같다.

2026. 5. 20. (수)

오늘은 수업 시연이 있어서 지난번 했던 지도안을 가지고 받았던 피드백을 토대로 수정해서 준비 후 진행하였다. 학생들의 반응과 수업 난이도, 시간 등을 고려하여 수업 흐름을 다시 구성하였다. 그러나 시연을 하면서 도입 부분에서 준비한 수업과 시간이 남아서 굉장히 어떻게 해야하나 멘붕이 왔었다. 그래서 결국 전개 부분의 활동을 앞으로 끌어왔다.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모든 시간에 딱 맞춰서 끝낼 수 있었다. 오히려 앞으로 당긴 것이 긍정적 효과를 주었다. 그러면서 준비 과정 속에서 충분한 준비의 필요성을 다시 느끼게 해주었다. 그리고 계획대로만 이루어지지 않는 수업에서 학생들의 반응에 맞추어 유연하게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2026. 5. 21. (목)

학부모 공개수업 안내를 진행하면서 확실히 1학년 학부모님들이 많으시고 2~3학년 부모님은 참여가 저조하다는 것을 느꼈다. 학부모님께 안내해드릴 때는 밝은 에너지와 좋은 감정을 줄 수 있는 교사의 마음으로 더 친절하게 안내해 드렸다. 그리고 어제 진행했던 수업에 대해 어떤 점이 부족하고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점검하였다. 마지막 수업 시연이 끝나니 어느덧 실습날이 별로 남지 않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처음에는 시간이 엄청 느리다고 느꼈던 것 같은데 이제는 헤어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니 너무 아쉬움 마음이 든다. 게다가 동료 교생 선생님들과 친해져서인지 더 아쉽고, 아이들과도 이제야 점점 더 친해지고 있다보니 아쉬움 마음이 한가득이다.

2026. 5. 22. (금)

1교시~4교시에 뮤지컬 예선 대회 진행 도우미를 하면서 학생들의 평소와는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고 진지한 모습을 보면서 꿈에 대한 열망과 열정이 대단하다고 느꼈다. 보면서 오히려 내가 배운 것 같았다. 대기를 하면서 떨고 있는 아이들에게 긴 말을 해줄 수 없었지만, 실수 없이 잘하고 오길 속으로 열심히 응원했다. 실수로 인해 힘들고 우울해하는 친구에게는 격려하고 따뜻하게 위로해주는 아이들을 보며 이러한 경험 또한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느꼈다. 오늘 경험을 통해 학생들의 다양한 재능과 개성을 발견하고 지지해주는 것 또한 교사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점을 느낄 수 있었다. 남은 시간 동안 아이들과 더 특별한 추억을 남겨야겠다.

2026. 5. 26. (화)

오늘 6교시에는 학생과 상담을 진행했다. 사실 상담 전에는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혹시 어색한 침묵이 생기지는 않을까 조금 긴장되었다. 하지만 막상 마주 앉아 이야기를 시작하니 예상보다 훨씬 솔직한 대화가 오갔고, 학생의 작은 말들 속에서도 생각보다 많은 감정과 고민이 숨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평소 교실에서 보던 모습과 상담 속 학생의 모습이 꽤 달랐다는 점이다. 무심해 보였던 표정 뒤에도 나름의 고민이 있었고, 가볍게 넘겼던 행동에도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학생을 안다'는 건 단순히 이름을 외우거나 수업 태도를 파악하는 게 아니라, 그 학생이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는지 궁금해하는 일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상담을 하면서 내가 정답을 말해주는 사람이기보다, 학생이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 있게 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점도 배웠다. 어쩌면 교사에게 필요한 건 거창한 해결책보다 "그랬구나" 하고 들어주는 태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상담이 끝난 뒤에는 묘하게 마음이 오래 남았다. 오늘은 학생을 조금 더 가까이 이해하게 된 날이었던 것 같다.

2026. 5. 27. (수)

오늘은 아침 등교맛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아직 잠이 덜 깬 얼굴로 교문을 지나가는 학생들, 멀리서 손을 흔드는 학생, 인사에 무심하게 고개만 끄덕이는 학생까지 짧은 순간 안에도 저마다의 온도가 있었다. "안녕하세요"라는 짧은 인사를 반복했을 뿐인데 이상하게도 학생들의 하루 초입에 잠깐 함께 들어간 기분이 들었다. 어떤 학생은 먼저 웃으며 인사해주었고, 어떤 학생은 며칠 전보다 표정이 조금 밝아 보여 괜히 혼자 반가웠다. 별거 아닌 시간 같지만, 교사가 학생을 알아가는 방식은 생각보다 이런 작은 순간들 속에 숨어 있는 것 같았다. 이후에는 학생 상담을 진행했다. 상담을 진행할수록 예상보다 학생들의 생각이 깊다는 생각이 든다. 짧은 대화였지만 학생과의 거리가 아주 조금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다. 동료 교생선생님의 수업도 참관했다. 같은 교생이라 그런지 수업을 보는 내내 공감과 긴장이 동시에 느껴졌다. 학생들의 반응에 따라 흐름을 조절하는 모습, 순간적으로 분위기를 환기하는 장면을 보며 나였다면 어땠을까'를 자꾸 떠올리게 되었다. 수업을 잘한다는 건 완벽하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과 호흡을 맞추는 일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오늘은 유난히 '교사'라는 역할이 거창한 것보다도, 학생의 하루 가까이에 조용히 머무는 사람이라는 느낌으로 다가왔던 하루였다.

2026. 5. 28. (목)

오늘은 뮤지컬 댄스와 보컬 수업을 참관했다. 교실 문을 열자마자 평소와는 전혀 다른 에너지가 느껴졌다. 학생들은 힘들지만 끝내 동작을 따라갔다. 수업을 참관하면서 나도 모르게 학생들의 작은 변화들을 따라 응원하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6교시에는 학생 상담을 진행했다. 오늘도 '좋은 말을 해줘야 한다'보다 잘 들어줘야겠다'는 마음이 먼저 들었다. 평소 밝게만 보였던 학생에게도 말하지 못한 고민과 생각이 있다는 걸 알게 되니 마음 한켠이 묘하게 먹먹했다. 오늘 하루는 학생들을 '가르쳐야 하는 대상'보다 '각자의 속도로 애쓰고 있는 사람'으로 조금 더 가까이 보게 된 날이었다. 종례 시간에는 반에 쓰레기와 정리 정돈이 점점 안되어 가는 것 같아서 청소 지도를 하였다. 말로만 하기보다는 학생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할 수 있게 동기를 부여해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2026. 5. 29. (금)

오늘은 학교에 최종 제출할 지도안을 다시 들여다보며 하루를 시작했다. '이제 거의 끝이구나' 하는 생각 때문인지 평소보다 문장 하나, 활동 순서 하나가 더 신경 쓰였다. 처음 지도안을 만들던 날엔 무엇을 넣어야 할지 막막했는데, 오늘 수정하며 보니 어느새 '학생들이 여기서 어려워하진 않을까?'를 먼저 생각하고 있는 내 모습이 조금 낯설면서도 신기했다. 완벽하진 않더라도 적어도 처음보다 학생 입장에서 고민하려는

교사가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이 스쳤다. 동료 교생선생님의 영화 수업도 참관했다. 영화라는 익숙한 매체를 통해 학생들의 이야기를 끌어내는 방식이 꽤 인상적이었다. 특히 학생들이 예상외로 진지한 의견을 내는 순간들이 기억에 남았다. 누군가는 짧게 말했지만 묵직한 생각을 남겼고, 또 누군가는 영똥한 이야기 같다가도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역할을 했다. 수업을 보며 문득 '학생들은 생각보다 훨씬 깊고 재밌는 존재들인데, 내가 자꾸 어른의 기준으로 예측하려고 했던 건 아닐까' 하는 반성이 들었다. 남은 시간에는 일지를 작성했다. 하루를 글로 정리하다 보니 실습 초반에는 '잘해야 한다'는 마음이 컸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된 것 같다. 아직도 부족한 게 많고, 교사라는 역할은 여전히 어렵게 느껴진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전처럼 막막하지만은 않다. 오늘은 조금 서툴러도 천천히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묘하게 가벼웠다.

2026. 6. 1. (월)

오늘은 눈에 띄는 큰 일정은 없었지만 이상하게 생각이 많아진 하루였다. 먼저 일지를 작성하면서 실습기간 동안 지나온 시간들을 하나씩 더듬어 보게 되었다. 하루하루는 정신없이 지나갔는데, 막상 글로 정리해보니 그 안에 꽤 많은 장면이 쌓여 있었다. 처음엔 학생들 이름 외우는 것도 버거웠는데 어느새 누가 조용히 웃는지, 누가 아침마다 피곤한 얼굴인지 자연스럽게 기억하고 있는 내가 조금 신기했다. 기록한다는 건 단순히 남기는 일이 아니라, 놓치고 지나간 마음들을 다시 보는 일 같았다. 이후에는 최종 지도안을 다시 확인했다. 이미 여러 번 수정한 자료였지만 막상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괜히 사소한 표현 하나도 다시 읽게 되었다. 예전엔 '내가 잘 설명할 수 있을까'를 먼저 걱정했다면, 지금은 학생들이 이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다. 정답 같은 수업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학생들이 덜 지루하고 조금이라도 자기 생각을 꺼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상담 준비도 했다. 질문을 미리 적어보면서 문득 학생들이 나를 얼마나 편하게 느낄까'라는 생각이 스쳤다. 괜히 어른처럼 조언만 늘어놓다가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들진 않을까 조금 걱정도 됐다. 그래서 오늘은 무언가를 해결해주겠다는 마음보다, 학생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 되자는 쪽으로 마음을 더 가졌다. 실습이 끝나가니 아쉬움도 슬쩍 올라오지만, 그만큼 학생들에게 마음이 갔다는 뜻 같아 혼자 괜히 웃음이 났다.

2026. 6. 2. (화)

오늘은 유난히 시간이 천천히 가는 것 같았다. 일지를 작성하면서 교생실습 '첫날의 나'를 떠올려봤다. 교무실 자리 하나도 조심스럽고, 학생들 앞에 서는 것만으로 긴장했던 순간들이 아직 선명하데 벌써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다는 게 조금 이상하게 느껴

졌다. 매일 비슷한 학교 풍경이었는데, 끝이 가까워진다고 생각하니 복도 소음이나 쉬는 시간 웃음소리까지 괜히 오래 귀에 담고 싶어졌다.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던 일상들이 사실은 곧 지나갈 장면이라는 걸 이제야 실감하는 기분이었다. 상담 준비를 하면서는 '무슨 말을 해줄까 보다 어떤 기억으로 남고 싶을까'를 더 오래 생각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학생들에게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문득 궁금해졌다. 누군가에게는 그냥 지나가는 교생 선생님일 수도 있지만, 혹시 아주 작은 응원 하나라도 남길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 싶었다. 괜히 마음이 말랑해져서 평소보다 학생들 이름을 천천히 불러보게 되는 순간도 있었다. 그리고 아이들과 마지막 인사를 준비했다. 처음엔 별생각 없을 줄 알았는데 막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다 보니 마음 한쪽이 자꾸 울컥했다. 너무 거창하지 않게, 그렇다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도 않게 진심을 전하고 싶었다. 어쩌면 내가 학생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쳤다고보다, 학생들이 내게 '교사가 된다는 건 어떤 마음인지'를 먼저 알려준 시간 같기도 하다. 마지막이 가까워질수록 아쉬움은 커지지만, 그만큼 정이 들었다는 사실이 조금 따뜻하게 남는 하루였다.